

전매광장



대유민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장

며칠 전 서울에서 온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며 한참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식당에 들어오는 일행 중 눈에 띄는 한 명이 식당 안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다. 예쁘게 화장한 모습과 늘씬한 키에 집종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남성인지 여성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서였을까? 다짜고짜 친구는 얼굴을 가까이 대며 속삭이듯 물었다. “성 소수자를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묻는 걸 보면, 친구는 아마도 그 손님을 트랜스젠더나 크로스드레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을 보는 시선이 부정적임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모습에서 단박에 느낄 수 있었다. 대답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되물었다.

성소수자에 불편한 시선

잠시 망설이는 친구를 보니, 문득 몇 년 전 동성애 관련 강의 후남자 수강생 한 명이 “동성애 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 인간 멸종을 시키니까”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필자는 성소수자(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

성 선택은 자유

된 소수자)에 대해 어떤 입장도 아니지만 같은 사람으로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테슬라 모터스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아들 ‘하비에르’와 우리나라 영화 ‘너에게로 가는 길’에 나온 나비(엄마)의 아들 ‘한결’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와 나눴다. 물론 영화를 시청하지 않고서는 ‘한결’의 이야기를 다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필자의 친구처럼 무조건 나와 다르다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영화나 관련 서적을 찾아 보고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머스크의 쌍둥이 아들 중 하비에르는 열여덟 번째 생일이 지나고 “앞으로 여성으로 살고 싶다”며 어머니의 이름과 성을 따라 비비엔 제나 윌슨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캘리포니아 주 최고법원에 개명신청을 했다. 이것은 단순히 개명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여성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소장에는 ‘젠더정체성과 더 이상 친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도 않고,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 머스크와 관련되고 싶지도 않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한결’이 성별정정을 하는 과정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다. 트랜스젠더인 한결이가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이혼 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아버지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열여덟의 하비에르와 달리 이미 성인이 됐음에도 신체와 성별이 부모에게 종속돼 있다는 의미이며 만약 부모가 반대

한다면 성별정정은 불가능하고 인정받을 수도 없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차적으로 가족을 설득시키고 허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이겨내야 하는 큰 산이 버티고 있다. 가족의 인정과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두 가지를 통과해야만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모두 차별 없는 존엄한 삶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퀴어 Queer, 레즈비언 Lesbian, 게이 Gay, 바이섹슈얼 Bisexual, 트랜스젠더 Transgender, 무성애자 asexual, 인터섹스 Intersex, 크로스드레서 Crossdresser)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온전한 나’를 찾기 위한 최선의 몸부림 일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적, 정서적, 성적 끌림의 방향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출생 시 지정받은 성별과 자신이 규정하는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게 보거나 불편해 하거나 기묘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다.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과 나이, 성별, 장애, 학력 등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누구나 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유의지로 이뤄져야 하고 그 자체로 축복 아닐까?”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의 해답을 구한 것 같은 표정으로 말을 하고는 앞서가는 친구를 따라 식당을 나오니 여름 밤 선선한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간다.

목화를 보며

면서 연한 자색의 튼날 같은 잎에 싸여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린 날엔 먹을 것이 귀했다. 봄이면 배비, 싱가, 생키, 감꽃 등 뭐든 다 먹었다. 그래도 늘 배는 고프다. 하기가 배불리 먹을 것도 없었지만 먹어도 먹어도 배고플 나이인데 먹는 게 늘 부실하니 더 곱절거렸을 것이다. 보리감부기도 따 먹었고 밀서리도 하고 그러다보니 그 시절의 추억은 오히려 만물상이다. 지금 생각하면 가엾고 불쌍한 때였지만 아련한 그리움 가득 감사한 것들도 많다. 정서적으로는 요즘 아이들보다 몇 배는 더 풍성했다.

문학관으로 들어서려는 내게 옆 텃밭에서 반갑게 인사를 해온 목화, 어떻게 그제 눈에 띄었을까. 다른 이들은 아예 관심도 없다. 하기가 짙은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나이 든 세대도 만난 적 없으면 모를 터였다. 그래도 ‘ㅈ’ 선생이 나처럼 반가워서 함께 목화 곁으로 다가갔다. 아직 꽃이 필 때가 멀었으니 다래도 없다. 아기 손바닥 만한 작은 이파리가 귀여워 내 손을 갖다 대보았다. 한데 턱없이 큰 내 손에 순간 왈칵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만지면 안 될 것이라도 된 듯 갑작 놀라 손을 떼고는 눈으로만 조심조심 살피었다. 한두 달 있으면 꽃대도 줄기도 튼실해질 것이다. 그러면 거기 꽃봉이 맺히고 이내 꽃이 피리라. 목화의 꽃은 흰색도 노란색도 붉은색도 다 이쁘다. 색깔마다 독특한 운치가 있다. 마치 노랑 하양 빨강 나비들이 서로 부둥

켜안고 있는 모습이다. 한없이 여러 보이는 것이 더 순결하고 청순해 보인다. 하나쯤 피어나 꽃을 보는 반가움을 더했음은 모르나 내가 너무 일찍 와버린 것이다. 꽃도 꽃이지만 그 여러 말랑한 느낌의 다래를 만져보고 맛보고고 싶다. 아마도 다래의 속살을 입에 넣어도 그때의 맛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내 입맛은 자연의 것 아닌 것들에 수없이 길들여졌을 테니 얼마나 거칠고 둔해졌겠는가.

세월만큼 세상도 많이 변했다지만 어쩌면 나만 변했을 지도 모른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래 맛은 그 맛일텐데 내 입맛이 그것을 배반할 것 같다. 언젠가 아이와 아카시아꽃을 따먹은 적이 있다. 그걸 손에만 들고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아이의 눈길에 내가 더 당황 했었다.

목화는 세 번을 핀다. 꽃으로 피고 다래가 삭과가 되어 품은 솜뭉치로 또 피고 그리고 우리네 이부자리나 옷감의 따스함과 포근함으로 피어난다. 할머니는 막내이모가 시집을 가자 목화 농사를 끊었다. 그 후로는 씨반이로 몇 그루만 심었다. 그래도 그 몇 송이 따낸 목화솜을 모아놓으 시던 기억이 난다. 이곳의 목화도 제 몫을 기대하며 숨은 게 아니라 눈요기감일 것이다. 본연의 목적을 잃었다 해도 내게는 그리움의 꽃이다. 다래 하나를 까 목에 넣었을 때의 달큰한치름 움켜쥐고 그리움이 목줄을 타고 올라온다. 꽃이 피고 다래가 열릴 때쯤 다시 와야겠다. 운 좋으면 다래 하나쯤 맛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움의 맛을.

에세이



최원현 수필가·문학평론가·(사)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사)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참 오랜만이다. 얼마 만인가. 손바닥 모양의 가장자리가 튼날 같은 잎을 씩씩하게 뻗고있다.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잎겨드랑이에서 꽃대가 나올 것이고 그 꽃대 끝에선 꽃이 피어날 것이다. 목화(木花)다. 너무 오랜만에 보니 반가움에 눈물이 날 것 같다. 목화는 여러 색의 꽃을 피우는데 이젠 무슨 색 꽃으로 필까. 꽃자리에선 앙증맞게 다래가 열릴 것이고 그제 또 이내 커져서 딱딱해지다가 삭과(朔果)로 벌어지면 구름송이 같은 솜을 뿜어내리라. 8,9월에 핀 꽃 자리에서 맺힌 다래가 예닐곱 날쯤 자라면 우리 다래 서리를 나갔다. 그때를 놓치면 따도 먹을 수가 없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우리가 목화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주 조심스레 먹을 다래 몇 개씩만 골라 따다. 무엇보다 먹음직스런 크기를 보지만 만져봐서 딱딱한 느낌이 들면 이미 늦은 것이다. 어린 감촉이 느껴져야만 속살을 먹을 수 있다. 크기가 제법 크

독자광장

오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관련 위반 시 엄정 단속을 하게 된다.

내용을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할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선에서는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선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 주의를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위와 같은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의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보행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진병진 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계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복합쇼핑몰, 도시 경쟁력 획기적 계기돼야

광주지역에 첫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이 가시화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6일 부동산 개발기업인 ‘휴먼스힐딩스 제1차PFV’와 북구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약 31만㎡(9만평)에 미래형 문화복합몰 ‘더현대광주’ (가칭)를 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던진 복합쇼핑몰 유치 이슈가 이제 현실화하는 것으로 지역민의 기대감을 높인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과 같은 문화복합몰을 능가하는 설립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2월 여의도에 ‘더현대서울’을 오픈해 쇼핑 명사로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이 그룹은 이번엔 설립하는 광주 복합쇼핑몰과 관련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 소매점을 중심으로 결합된 지금의 복합쇼핑몰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쇼핑과 더불어 여가, 휴식,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문화체험이 접목되는 새로운 업태로, ‘더현대 광주’가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특히 방직산업 문화유

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기로 해 눈길을 끈다. 근대 역사문화유산의 파괴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또 인근 기아챔피언스필드와 연계해 ‘야구인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해 주목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2만2,2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도시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상공인이 많고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와 관련 소상공인,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마케팅과 서비스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아직 이 그룹은 부동산 개발기업과 사업을 협의 중인 만큼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호남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복합쇼핑몰은 이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

정부 ‘물가 상승’ 총력 대응 필요하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무려 6.0%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생활물가는 7.4% 뛰었고 외식물가는 8.0%나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은 30~50%씩 올라 천장이 어디인지 도저히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유가 50.7%나 뛰었고 휘발유가 31.4%, 등유는 무려 72.1%나 올랐다. 지난해 10월 3%대에 진입했던 물가는 상승 폭을 급속하게 확대하는 모습이다. 올해 3월과 4월에 4%대를 찍었고, 5월에는 5%대를 뚫더니 6월에는 6%대를 밟았다.

더욱이 물가 오름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외식 물가 오름폭 확대로 5월(5.4%)보다 높아지고, 하반기에도 원유·곡물 등을 중심으로 해외 공급요인 영향이 이어져 상반기보다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당장 이달부터는 점프 더위와 함께 본격 휴가철이 시작된다. 6.0%를 기록한 6월이 물가의 정점이 결코 아니라는 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예측했었지만, 현재 추세라면 하반기 내내 7~8%대 상승률을 경정해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추가 동시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한 동안 물가 상승 압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허리를 졸라 매고 힘을 모으는 것 외에 없다.

정부는 민생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큰 만큼 전쟁이라 생각할 정도로 총력대응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발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관세와 유류세 인하는 물론, 취약 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 마련도 시급하다. 지금이야말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위기극복의 DNA’를 다시 발휘해야 할 때다. 정부와 여당 국민회의 총력대응을 통해 고물가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풀어내기 바란다.

아시안게임 유치 시민 관심 절실하다

기지사설



조혜원 문화체육부 기자

광주시가 대구시와 함께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나섰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아 보인다.

광주시민단체는 2038 광주·대구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시민 100만명(대구 50만명, 광주 50만명)의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100만명 서명을 통해 유치열기를 끌어올리고 올해 하반기 대한체육회로부터 국내 후보 도시로 확정받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광주시민회는 지난달 26일 광주FC 홈경기장 열린 광주축구전용구장 입구에서 2038 광주·대구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광주축구전용구장 입구에서는 광주FC 선수들의 팬사인회와 광주시민회의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분위기는 정

반대였다.

팬사인회 부스는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는 등 인기가 높았다. 반면 ‘2024년 확정, 아시안 게임을 광주, 대구로 광주시민 함께하자!’ 라는 안내 문구가 써진 서명운동 부스는 한산했다.

광주체육진흥원에 따르면 서명운동은 지난 달 30일을 기준으로 약 3만 4,000명으로 매우 저조하다.

광주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22년 양궁월드컵대회를 성공 개최했고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를 이끌어 내면서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주목받고 있다.

각종 국제 대회를 치러낸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으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유치는 동서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대표적인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우뚝 설 것으로 전망되나 정작 시민들의 관심은 높지 않은 형국이다.

2038 하계아시안게임이 유치된다면 교류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영·호남 화합, 지역균형 발전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 전망이다.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광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하는 아시안게임 유치,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